2019학년도 제8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일 시	2019.12.05.(목) 9:30~10:30	장 소	본관 3층 대회의실
참석자	[11명] 이승렬(의장), 권영찬(부의장), 남효덕, 황도삼, 구춘권, 김정숙, 김상수, 박영봉, 이정형, 문영조, 최성욱		
불참자	[3명] 서인덕, 김문주, 신동훈		
배석자	정병석(문과대학장) 김병주(기획처장), 배재완(예산팀장) 송시연(부속병원 기획조정처장), 이종승(기획부장), 김인배(기획예산팀장), 김정민(기획예산팀)		
기록자	김만석(간사), 이교인		
안 건	<보고>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변경 보고 <심의> 영남대학교 학칙 개정(안) <자문> 2019학년도 교비회계 4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자문> 2019학년도 부속병원회계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1 회의요지(내용)

가. 개회

○ 이승렬 의장 :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하고, 2019학년도 제8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안건을 부의하다.

나. 안건 1 : <보고>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변경 보고

○ 이승렬 의장 : 영남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19년 10월 14일자로 변경된 대학평의원회 현황을 참석 평의원에게 보고하다.

다. 안건 2 : <심의> 영남대학교 학칙 개정(안)

○ 이승렬 의장 : 영남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 정병석 문과대학장 : 영남대학교 학칙 개정(안)의 목적 및 취지, 주요 골자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 구춘권 : 인문교육학술원 설치는 문과대학에서 오랜 논의 과정을 통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라 판단되는데 2년 임기의 문과대학장이 원장을 겸임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절한지, 인문교육학술원을 문과대학 산하에 설치하는 이유가 예산 절감 차원인지 질의하다

간인(서명)	의장		의원		의원	

○ 정병석 문과대학장 : 인문교육학술원 설치 시 독립성과 연속성의 2가지 측면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나 대학본부와 예산 절감 측면, 타 기관과의 형평성 측면 등 다각도의 검토 협의 결과, 문과대학 부속시설로 설치하고 학장이 원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다. 당초 문과대학에서 인문교육학술원 설치를 제안했을 때 대학본부에서는 인문학 관련 연구소 통폐합을 전제로 논의하자고 하였다고 하다. 이에 따라 문과대학 관련 연구소 소장들과 인문교육학술원 참여에 대해 협의하고 참여 동의를 구했으나, 한국연구재단의 중점연구소 신청 등과 같이 개별 사안에 따라 별도로 운영될 필요가 있어 인문교육학술원과 연구소를 통폐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다. 인문학 연구 활성화 노력을 위해 원장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대학 재정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는 현실을 적극 감안하여 학장이 원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다. 추후 해당 연구소들과 연계 협력하여 국고 사업 및 과제 수주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하다.

○ 김정숙 : 인문학육성기금 활용 측면에서 반드시 외부 연구비 수주를 위한 대응자금 활용을 전제로 하는 등 명확한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다. 지속적인 외부 연구비 수주 없이 인문학육성기금만으로 운영될 경우 기금이 금방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하다. 상대적으로 인근 대학이 정부 주관 중점연구소 선정이나 대형연구사업 수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다. 우리 문과대학에도 학술적으로 매우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가까운 시일 내 외부 대형 연구사업 수주에 성공한다면 인문교육학술원의 설치 의미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하다.

○ 황도삼 : 기본적으로는 인문교육학술원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다. 다만, 앞서 설명하신 인문교육학술원 설치 목적과 의미의 명확한 전달과 유사 명칭인 인문과학연구소와의 차별성을 위해서라도 연구소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내세우는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떠한지 질의하고, 그것이 오히려 외부의 연구과제 수주를 위해서도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하다.

○ 정병석 문과대학장 : 설치하고자 하는 인문교육학술원과 가장 유사한 성격의 연구소가 인문과학연구소이기 때문에 성격상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에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연구소 관련자들과 협의하였다고 하다. 인문교육학술원 설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인문교육이라고 하다. 설립 기본 방향이 시대에 맞는 인문학 연구를 포함하여 인문교육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공공적 시민교육 방향을 강조하기 위해 인문교육학술원 명칭으로 하였다고 하다.

○ 남효덕 : 인문교육학술원 설치와 관련하여, 문과대학과 관련 연구소가 함께 충분히 논의하였고, 다음에 수정할 기회가 있으니 이 정도로 논의를 마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인문학이라는 것이 대학 밖으로만 나가면 매우 많은 파급효과가 있고 실제적인 역할이 많다고 하다. 대학 내에서 인문학은 죽어가고 있지만, 대학을 벗어나면 인문학은 살아나고 있다는 말이 있다고 하다. 대구 경북의 지역사회와 연결하고, 지자체와 연결해서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인근 대학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인문교육학술원을 설치하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문학 자원, 연구력, 인적 자원을 최대한 지역사회와

간인(서명)	의장		의원		의원	

연결시켜서 인문교육 쪽으로 나아가자는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고, 이런 의미에서 여러 의원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경청하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운영위원과 학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정병석 문과대학장 : 규정(안)에서 보듯이 학장이 운영위원을 13명 내외로 임명하게 되어있다고 하고, 관련 연구소 소장 중에서 3인이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되어있다고 하다.

○ 김상수 : 사업목적과 설립 취지는 상당히 공감한다고 하다. 물론 대학본부와 논의를 거쳤겠지만, 인문교육학술원 규정 자체를 설립목적과 운영체계에 맞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다.

○ 김만석 기획팀장 : 각 단과대학 산하에 설치된 부속·부설기관이 많은데, 대부분 기관들이 원장을 별도로 두고 학장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예로 든 기관들과는 상황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고, 인문교육학술원은 학장이 원장을 겸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운영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다.

○ 김상수 : 이 규정이 교무위원회에 통과하였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김만석 : 아직 규정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다.

○ 황도삼 : 학장님께서도 여러 의원들의 요구와 의견을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의되었으며 다른 안건도 있고 하니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자고 건의하다. 만약에 오늘 2019학년도 제8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부결되면 수정 상정하여 재심의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다.

○ 김만석 기획팀장 : 기획위원회와 교무위원회에서도 설립 자체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문과대학과 대학본부가 1년 6개월 동안 협의 진행하면서 최대한 접점을 찾은 내용이라고 하다. 기구 설치와 관련한 학칙 개정(안)이기 때문에 개정 절차상 사전공고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다. 부결된다면 학칙 개정(안) 사전공고부터 다시 진행하여 기획위원회, 교무위원회 심의를 받고 대학평의원회에 재상정하여야 한다고 하다. 이러할 경우 인문교육학술원 설립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다.

○ 김상수 : 상정된 안건은 인문교육학술원 설치와 관련된 학칙 개정(안)으로써 부연 설명을 위해 관련된 운영 규정까지 참고사항으로 첨부되어 있다고 하다. 따라서 본래 대학평의원회의의 기능과 역할대로 심의안건 참고자료인 인문교육학술원 운영 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은 제시하되, 학칙 개정(안)은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하다.

○ 황도삼 : 학칙을 통과시키려면 반드시 기구 명칭이 들어가야 하는데, 명칭을 이대로 통과시켜야 하는지 질의하다.

○ 김만석 기획팀장 : 인문교육학술원 명칭 부분은 문과대학이 1년 6개월 동안 숙고한 상황으로 대학평의원회에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학칙 개정(안) 재심의를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다.

○ 김만석 기획팀장 : 문과대학에서 외부 연구과제와 기금 유치를 위한 연구재단 사업 수주 준비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구 설치를 요청하였다고 하다

간인(서명)	의장		의원		의원	

○ 정병석 문과대학장 :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는 넘어가게 된다고 하다.
○ 김정숙 : 이 안건으로 대학평의원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에 대해 질의하다.
○ 구춘권 : 인문학 활성화라는 좋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출범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하고, 여러 교수님께서 열심히 준비해온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부결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다.
○ 김상수 : 학칙 개정(안)은 기구 설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과시키고, 추후 학장님께서 제정된 인문교육학술원 규정을 대학평의원회에 별도 보고하실 것을 제안한다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여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같이 공유되었다고 하고, 이번 학칙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인문교육학술원 설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서 출범을 시키는 것으로 하다. 영남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견이 없으므로 영남대학교 학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추후 학장님께서 별도로 인문교육학술원 규정을 대학평의원회에 보고하시는 것으로 하다.

라. 안건 3 : <자문> 2019학년도 교비회계 4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 이승렬 의장 : 2019학년도 교비회계 4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 김병주 기획처장 : 2019학년도 교비회계 4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 이승렬 의장 : 2019학년도 교비회계 4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견이 없으므로 2019학년도 교비회계 4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 대한 자문을 마친다고 하다.

마. 안건 4 : <자문> 2019학년도 부속병원회계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 이승렬 의장 : 2019학년도 부속병원회계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 송시연 기획조정처장 : 2019학년도 부속병원회계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 김정숙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개원 이후 6개월 정도 경과되었는데 우리 부속병원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송시연 기획조정처장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개원을 위해 이전 준비과정에서 진료를 보지 않았을 때 일정 부분 영업이익을 냈다고 하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개원 직후를 제외하고는 우리 병원의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다.
○ 김정숙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현황에 대해 질의하다.
○ 송시연 기획조정처장 : 현재는 우선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이며 지난 월요일에 심사단이 방문하여 심사를 마친 상태로 내주 초에 최종 지정과 관련된 통보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다.
○ 김정숙 : 우선 대상자일 뿐이지 최종 지정은 다음 주에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송시연 기획조정처장 : 다음 주에 최종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고, 심사 시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최종 지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다.

간인(서명)	의장		의원		의원	

○ 이승렬 의장 :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이미 지정된 것으로 홍보가 된 것으로 되어있다고 하다.

○ 송시연 기획조정처장 : 예비 선정이 되었고, 서류상으로 아직 최종 지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물 준공, 인력 및 장비 확보를 완료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준비는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으나 최종 지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다.

○ 김정숙 : 최종 지정 이후에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시너지 효과 등에 대해 질의하다.

○ 송시연 기획조정처장 : 아무래도 최종 지정이 되면, 일반 응급환자 후송 등을 통해 경증 환자보다 중증 환자들의 내방율이 높아지게 되면 진료 부분 등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하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으면서 2층과 3층에 순환기센터와 심뇌혈관센터를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분초를 다투는 심장마비, 뇌졸중 환자들에 대해서도 긴급하게 시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서 다른 병원보다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다. 특히, 심뇌혈관센터는 전체적으로 실적도 좋고 평가를 잘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좋을 것 같다고 하다.

○ 김정숙 : 대구·경북 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내적 산업상태가 그렇게 양호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활성화 등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다.

○ 송시연 기획조정처장 : 신생아들이 줄고 있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심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여 당분간은 의료 수요가 있을 것이며, 향후 의료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 하다.

○ 김상수 : 뉴스 보도에도 자주 나오다 보니 경산 교직원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인 고공농성과 관련하여, 입장 또는 협상 결과 등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하다.

○ 송시연 기획조정처장 : 사적 조정을 하고 난 이후 의견차이가 너무 크나 결렬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현재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화의 여지는 남겨둔 상태라고 하다. 요구사항은 5개 안 이외에는 더 이상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다. 원칙적인 상황만 이야기하다 보니 대화가 평행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며칠 전 전국 방송 뉴스에 의료원장이 특별채용 제안을 한 것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 질의하다.

○ 송시연 기획조정처장 : 특별채용과 관련한 규정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업적이 매우 뛰어나거나, 대학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한 분들을 모시기 위한 조항으로서 현재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고 하다.

○ 김상수 : 조정위원들이 아닌 당사자 간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송시연 기획조정처장 : 대화가 직접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하다.

○ 남효덕 : 특별채용을 통해 입사 당일에 퇴사하는 방안에 대해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송시연 기획조정처장 :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 정도로 이 사태가 해소된다고 하면 최대한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며, 고공농성 당사자에 대해서도 설득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하다.

간인(서명)	의장		의원		의원	

○ 이승렬 의장 : 사적 조정 시 노동조합 측과 함께 협의한 바 있다고 하고, 주장하는 5가지 중의 3가지 정도는 주장할 생각이 없다는 내용을 들은 바 있다고 하다.

○ 송시연 기획조정처장 : 영남학원 민주화하고 비정규직 철폐의 2가지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고, 원직 복직, 노동조합의 원상 복귀, 이 사태와 관련한 책임자 처벌 요구에 대해서는 철회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책임자 처벌은 양보하겠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하다.

○ 이승렬 의장 : 2019학년도 부속병원회계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견이 없으므로 2019학년도 부속병원회계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 대한 자문을 마친다고 하다.

바. 폐회

○ 이승렬 의장 : 총장선출제도 개선(안) 관련 공청회를 오늘(2019.12.05.(목)) 오후 14:00~16:00까지 제2인문관 문파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한다고 하다. 그리고, 다음 2019학년도 제9차 대학평의원회는 2020.01.21.(화)에 예정(잠정)되어 있으니, 특별한 사항 없으면 많은 참석 부탁드린다고 하다. 호선에 의하여 간인(서명) 의원으로 의장과, 권영찬 부의장, 박영봉 의원을 선출하다. 제8차 회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각 의원에게 회의 종료 전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다.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2019학년도 제8차 대학평의원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2 심의결정사항

가. 안건 1 : <보고>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변경 보고

- 2019년 10월 14일자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변경 확인 완료

나. 안건 2 : <심의> 영남대학교 학칙 개정(안)

- 영남대학교 학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추후 문과대학장이 별도로 인문교육학술원 규정을 대학평의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다.

다. 안건 3 : <자문> 2019학년도 교비회계 4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 별도 자문 의견 없음

라. 안건 4 : <자문> 2019학년도 부속병원회계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 별도 자문 의견 없음

간인(서명)	의장		의원		의원	

2019.12.05.

평의원 확인	이승렬	권영찬	남효덕	서인덕
	의 장	부의장		불참
	구춘권	김문주	김정숙	신동훈
		불참		불참
	황도삼	김상수	박영봉	이정형
	문영조	최성욱		